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호 [루게 제25154호] 주제105(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성공에 기여한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을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청사로 부르시어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게 된 무한한 긍지와 영광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새차게 설레이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기발이 힘차게 나뭇기는 당중앙위원회청사앞으로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주시어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

여주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러내시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저어주시며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주체적국방공업발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

이고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을 안아온 핵과학자들과 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수소탄 시험을 성공시킨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계속진전, 계속혁신해나감으로써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걸사옹위!》

의 구호가 터져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받드시어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선,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며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대 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천만년미래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정의로움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김정은명도자께서 조선인민군 대원 후보들의 포사격경기를 보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명도자께서는 로병들이 잘 훈련된 저격무기사수를 길다고 치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께서는 모든 로병부대, 구분대들이 조선로동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기 위해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훈련형식과 내용, 방법을 탐구하고 훈련의 질을 부단히 높일 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들인 《모스콥스키 콤포스메트》, 《콤포스콥스카야 브라우더》, 《멘데예프방송》, 인터넷통신들인 가세마, 루, 울라드뉴스, 미국의 UPI통신, 일본의 코도통신,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힐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데헤-로스통신, 스푸트니크방송, 세네갈신문 《데 보뽀메트》, 로드니아신문 《로드니아 문치포아에》, 브라질인터넷신문 《세파아제 노피시아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힐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전하였다. 세네갈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 2016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도 실었다. 로씨야, 도이힐란드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

식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김정은명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에 참석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훌륭히 수행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의 주인공들로 평가하시었다. 그리고께서는 2016년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정명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그리고께서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서버리고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그리고께서는 회의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미국의 UPI통신, 세네갈신문 《데 보뽀메트》,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도이힐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과 네팔기자협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내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아제르바이잔의 인터넷통신 트랜드는 조선인민군 제528연합부대와 제671대면합부대사이의 생방송 동원편을 보신 소식을 전하였다. 민주공고, 도이힐란드, 네팔의 신문, 인터넷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에 축전을 보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창건 43돐에 즈음하여 각하와 귀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자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튼튼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당신이 건강할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5(2016)년 1월 9일 평양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

로씨야신문 《하바롭스크 역스쁘베스》 지난해 12월 24일부는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의 방방곡곡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김정은명도자의 현지지도는 세 계연론들의 커다란 주목을 끌고있다. 거침없고 활발하며 여유있는 자세로 인민들과 교감하시는 김정은명도자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도 같은 이야기들을 소개하였다. 신문은 어린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미래이다, 후대들에 대한 정치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시었던 열화같은 후대사랑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고있는데 대해 서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의 위용떨치며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최후승리를 선언하는 2016년의 진동

날과 날은 흘러도 지난 1월 6일의 사변은 아직도 강렬한 충격으로 전세계를 뒤흔든다. 어찌 세계가 놀라지 않았는가. 미제의 악착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 어려운 조건에 있는 우리 나라가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도 만들지 못하는 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인 수소탄제작에서 완전성공을 이룩한 것이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수소탄의 기술적대원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였으므로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은 그대로 만족하여 울라진 눈부신 노비를 꾸민채로 파시하는 특대사변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 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우르르는 인민의 심정은 어쩌어 그리도 세찬 격정과 환희로 고통했는가. 수소탄시험성공소식이 강산에 메아리처럼 며칠전, 미래과학자거리에 펼쳐졌던 격동적인 화폭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 밤길도둑 불빛이 꺼질 줄 모르는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부강조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서 그리도 마음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과학기술의 빛나는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가슴깊이 새겨들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 《오늘의 대승리는 주체과학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져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민족의 대경사임이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민족의 특대사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가장 크고 향기로운 꽃다발을 차고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의 연막에서 우리 식 CNC화의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시고 최첨단들과의 발구름소리 울리는 나라에 높이 울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뜨겁게 어려온다.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 호발사의 단번성공에 이어 《광명성-2》 호와 《광명성-3》 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 지하핵시험의 면이 없는 성공, 그 하나하나의 사변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고난의 눈보라속에서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일심단결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민족의 대경사가 아니었던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진, 위대한 조진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2016년의 장쾌한 폭음은 또 어떻게 울려펠지이다. 우리의 눈앞에 지난 1일 전 민족학술의 대진행, 최진파격전 보급거점으로서 일떠선 과학기술 전망을 찾았었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쁨에 넘친 영상이 후회 없이 어려온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

을 과학으로 열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은 얼마나 뜻깊었던가. 당장인 일흔을 맞은 지난해에도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당의 과학전시장이 융축된 시대의 기념비들을 이 땅에 안아올리시어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다져주고 최첨단들과의 발구름소리를 울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뜨겁게 어려온다.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 호발사의 단번성공에 이어 《광명성-2》 호와 《광명성-3》 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 지하핵시험의 면이 없는 성공, 그 하나하나의 사변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고난의 눈보라속에서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일심단결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민족의 대경사가 아니었던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진, 위대한 조진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2016년의 장쾌한 폭음은 또 어떻게 울려펠지이다. 우리의 눈앞에 지난 1일 전 민족학술의 대진행, 최진파격전 보급거점으로서 일떠선 과학기술 전망을 찾았었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쁨에 넘친 영상이 후회 없이 어려온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

를 과학으로 열었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은 얼마나 뜻깊었던가. 당장인 일흔을 맞은 지난해에도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과 같은 당의 과학전시장이 융축된 시대의 기념비들을 이 땅에 안아올리시어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다져주고 최첨단들과의 발구름소리를 울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뜨겁게 어려온다.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 호발사의 단번성공에 이어 《광명성-2》 호와 《광명성-3》 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 지하핵시험의 면이 없는 성공, 그 하나하나의 사변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고난의 눈보라속에서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일심단결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민족의 대경사가 아니었던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진, 위대한 조진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2016년의 장쾌한 폭음은 또 어떻게 울려펠지이다. 우리의 눈앞에 지난 1일 전 민족학술의 대진행, 최진파격전 보급거점으로서 일떠선 과학기술 전망을 찾았었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쁨에 넘친 영상이 후회 없이 어려온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

순천 화력 발전소 로 동계급

중산층을 격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펴 읽는 심장마다에 받아 안고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순천화력발전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주체조선의 천년년미배를 담보하는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에 무한히 고무되어 더 높은 증산목표를 내걸고 반격해 내달리고있다. 새해 첫날부터 일별 파제를 1.1배이상으로 넘쳐 수월! 계획보다 매일 평균 수십만 kWh의 전력 더 생산! 열생산직장과 타린직장, 전기직장의 전투장에서 만사람의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증산의 새 소식들이 련속 울려 퍼진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의 총진격의 앞장서서 힘차게 내달려야 합니다.》 3호기와 1호기의 전력생산자들이 만부하를 걸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의 민족사적사변에 접한 이들이 더 높은 증산목표를 내걸고 전력생산계획을 매일 평균 1.15%로 넘쳐 수행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2호기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신념을 더 바짝 조이며 시간이 흐름수록 기세를 올리고있다. 직장별 사회주의증산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새해 첫날 전력생산파제를 2시간이 상 앞당겨 완수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열생산직장 전투원들이 생산물적전에 더욱 드센 박차를 가한다. 타린직장과 전기직장에서도 앞서거니뒤서거니 승부를 다투며 증산열에 불도가 나리남 부름부름 불어번진다. 허나 막이서는 애로와 난관도 결코 간단치 않다. 1호주변압기와 2호보일러에서 뜻밖에도 여러개의 이상오소가 발생했다. 운영호기의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가? 무겁게 짓누르는 물음앞에 이 곳 로동계급은 실천으로, 육단정신으로 대답했다. 정광혁, 한성민, 김봉문, 한영선동무들 비롯한 전기직장 일군들과 담당기술자, 기능공들이 독특한 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종전방식대로 하면 2시간이상 걸려야 할 정비보수파제를 불과 40분 만에 질적으로 수행하였다. 열생산직장의 로동자들이 불리한 작업조건속에서도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

하여 파열기의 관료제와 용역직업을 짧은 시간에 해체할 때 최영남동무를 비롯한 타린직장 1교대의 운전공들이 집안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설비정수 작업을 책임적으로 보충하였다. 하여 이 곳 발전소 운영호기들은 증산열기를 더욱 거세하게 내뿜었으며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소식이 발표된 지난 6일전투에서 전담보다 4만kWh이상의 전력량을 더 생산하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어찌 이뿐이랴.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정비보수파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 전기타린보수직장 기술자, 로동자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여러가지 예비부속품보급과 물성시험에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자력갱생직장 기능공들... 비록 결모습은 소박하고 수소해도 조국의 큰 짐을 남김없이 거들의 두어깨에 걸머지고 전진하는 이 곳 로동계급의 심장은 불보다 뜨겁다.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의 장쾌한 위성으로 새 세계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조선을 우리 당의 손길따라 흥건되는 앞장서서 걸출물이 내달리고있는 이 곳 로동계급의 불보다 뜨거운 애국정신과 인민적헌신 투쟁에 의하여 시간외 증산수력 전력증산생산은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전화기의 송수화기들을 번갈아들며 각 도, 시, 읍에서 올라오는 수신키까지 지표에 대한 농사차별적성을 종합하는 농업성 해담 부문의 일군들, 부인 협동농동무가 먼저 농민사를 보며 미안한 기색을 지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수조건설의 제1제대 제1선봉에서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루키고도 제일 드라마틱한 시간에 들린 우리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두툼에서 동시에 전화소리가 울렸다. 부인들인 김영진, 오문학동무들이 각각 송수화기들을 쥐고 인사를 나누기 바쁘게 생살보통 받았다. 《그게 정말이요? 황남이 용을 쓰는구만. 대단해! 그러나 자만하면 안되지.》 의문질반, 감란질반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지표별실적들을 기록하는 부인 김영진동무의 얼굴에는 기쁨이 한껏 어려 있었다. 처장 장중호동무는 운반해야 할 유기질비료량도 많고 조건도 여러가지로 불리하여 온근히 우려했던 황해남도에서 특별

화희와 혁신으로 들끓는 협동농

농업성에서의 30분간 중대보도이후의 하루반반씩이 새해전투 첫날에 불과한 4.5%나 더 울려퍼졌는데, 끝없이 물어보아도 수화기에서는 정확한 실적이란 대답뿐이라고 하였다. 불현듯 제 2차 지하핵시험성공소식이 전해올 당시에 들렸던 김소식은 은호협동농장의 모내기 전투장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때 150일전부터 펼쳐나선 우리 관료와 인민을 크게 고무한 지하핵시험성공소식은 그곳 일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소식에 접하고 질풍을 더 많이 실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경주시 일해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신홍혁 특약

탄전에 내려치는 폭풍의 기상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연합기업소에서 이룩되는 성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하고 증산물적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곳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열화같은 애국충정의 열도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군정당원과 인민들 그리고는 나라 가정들에 새해의 축하를 보내주시며 민주적파업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은 연합기업소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화력발전소장전투가 벌어지는 지하탄광에서도, 화목과 정이 넘쳐나는 탄부가정들에서도 이런 불같은 열기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파업관철에로 부르는 전투부름들이 삼삼아 탄전들의 구내에 울려서고 방충전전차들은 방사선의 정중사적마다 일제히 사상선의 포문을 열었다. 연합기업소 당, 행정일군들도 각 관방들의 당, 행정일군들도 두가 지하탄광들로 들어갔다. 새해 첫 전투부터 기세를 올려야 당 제 7차대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기 위해 펼쳐나선 이 나라에 비약의 열풍을 더해 줄수 있다는 일군들의 목소리에 탄부들이 호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탄광의 가두너머에서도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탄부들을 위문으로 메밀이주었다. 막장마다에서 탄자들이 줄지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탄부들은 누구나 최근년대에 보기 드문 성과라고, 이 기세로 내달리면 만드시 올해엔 우리 연합기업소가 통장훈을 부르게 될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해말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지도도면 탄광들의 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중심고리가 선정되었다. 덕천탄광에서는 새 구역조업 대상이 주력방향으로 설정되었고 사창청년탄광에서는 연강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작전이 펼쳐졌으며 흥분탄광에서는 심부채탄으로 이행하기 위한 돌

조선로동당이 전략적구상을 빛나게 실현한 국방부문의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하리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소식에 접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위적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존엄이고 자주권이여 승리의 담보이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력사의 대장거, 민족사적사변 백두산영웅정면돌격대 화해 북도려단 련단장 강소림은 회장의 국력을 과시하며 세계의 상상상으로 솟구쳐오르는 조국의 모습을 보며 우리 백두정충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특별중대보도에 접한 우리 돌격대원들은 궁지와 최월에 넘쳐 하루공수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우리 련단반만이나 전체 건설장에서 기적장조의 불길이 새차게 타고르고 있다. 백두산영웅정면돌격대 3호발전소건설을 당 제 7차대회전으로 끝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배짱과 신념을 키운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은 3호발전소건설전투에서 선군시대 청년돌격정신을 총폭발시켰다. 풍원수신사업소 《아달산》 초선장 박근섭은 가공모건의 백수실업이로공들만이 아닌 사업소 전체 종업원들이 수소탄시험에 완전성공한 소식에 접하여 환희로 들끓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이 폐쇄는 철도들이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덕이다. 우리들은 핵위성에 화답하여

우리를 진감시킨 이 격동적인 소식은 날이 갈수록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가슴을 끓이는 격정과 환희로 끓어번지게 하고있으며 당 제 7차대회를 승리의 대희, 영광의 대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

회령시 인계협동농장 제 4작업반 4분조장 김광준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에 관한 보도에 접한 격동의 순간부터 분조원들모두가 강대한 우리 조국을 향료써 더 갈 발들자고 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뛰고 또 뛰고있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했다. 당 제 7차대회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을 마련한 국방공업부파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적 투쟁에 대한 불타는 총공격과 비상한 애국열의,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안고 뜻깊은 올해에 거이여 풍년년거리를 높이높이 쌓았다.

반만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에 접한 우리 련단선수들은 배우고 기쁘고 민족적자부심이 북받쳐올라 서로 부둥켜안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이제는 그 무엇보다 두려움 없으며 무진막강한 국력을 소유한 우리를 당할자 세상이 없다는 배심기 더운 든든해진다. 우리 련단선수들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조선들은 공화국의 계속인원 크나큰 자부심을 보이며 후대들과 온 세상사람들이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잊지 않게 우리들의 자부심을 그대로 쓰였다.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을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총공격전으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추동하는 더 높은 명적장성파로 이어가겠다.

반만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에 접한 우리 련단선수들은 배우고 기쁘고 민족적자부심이 북받쳐올라 서로 부둥켜안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이제는 그 무엇보다 두려움 없으며 무진막강한 국력을 소유한 우리를 당할자 세상이 없다는 배심기 더운 든든해진다. 우리 련단선수들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조선들은 공화국의 계속인원 크나큰 자부심을 보이며 후대들과 온 세상사람들이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잊지 않게 우리들의 자부심을 그대로 쓰였다.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을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총공격전으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추동하는 더 높은 명적장성파로 이어가겠다.

반만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에 접한 우리 련단선수들은 배우고 기쁘고 민족적자부심이 북받쳐올라 서로 부둥켜안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이제는 그 무엇보다 두려움 없으며 무진막강한 국력을 소유한 우리를 당할자 세상이 없다는 배심기 더운 든든해진다. 우리 련단선수들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조선들은 공화국의 계속인원 크나큰 자부심을 보이며 후대들과 온 세상사람들이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잊지 않게 우리들의 자부심을 그대로 쓰였다.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을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총공격전으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추동하는 더 높은 명적장성파로 이어가겠다.

반만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에 접한 우리 련단선수들은 배우고 기쁘고 민족적자부심이 북받쳐올라 서로 부둥켜안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이제는 그 무엇보다 두려움 없으며 무진막강한 국력을 소유한 우리를 당할자 세상이 없다는 배심기 더운 든든해진다. 우리 련단선수들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조선들은 공화국의 계속인원 크나큰 자부심을 보이며 후대들과 온 세상사람들이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잊지 않게 우리들의 자부심을 그대로 쓰였다.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을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총공격전으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추동하는 더 높은 명적장성파로 이어가겠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소식에 접하고 전력생산으로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 결의에 넘쳐있다. -영양 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특약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된 세상에 틀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진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고 마음껏 노래하라, 앞날의 조국은 너희들의 것이다



어떤 가나 명랑한 웃음소리만이 차분하다. 행복의 노래소리가 창공을 울려 퍼진다.

마치도 동화세계에 들어온듯 마음은 대번에 흥겨워지고 날개라도 뚝뚝하게 걸음은 아이적 시절처럼 가벼워진다. 복받은 학생소년들과 함께 있느라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은 더 젊어지는 것 같다고 누구나 걱정을 떠치는 여기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볼수록 이곳이야말로 세상에 다시 없는

아이들의 최후의 궁전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은 한없이 뜨거워진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자리는 불수목의 미시정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의 꿈, 아버지라 목청껏 부르며 위대한 아버지의 품에 달랠까 안고싶은 그 간절한 소망을 금시라도 풀어주려는듯 두팔을 벌리고 서있는 궁전은 결코 양부러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저

마냥 끌어당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중앙홀에 들어서서는 우리의 눈앞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사진전원

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우리를 수목 궁전을 찾았을 때 그곳엔 그날에 학생소년들과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시던 어머니수령님이 못 견디게 그리웠다.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아이들을 그처럼 사랑하시던 분이 또 어디에 있으랴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북받쳐 올랐을 수 없었다.

궁전전실을 밝히고서도 몸소 준공예드드 끊임 없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창조된 그

궁전이 아주 멋있다고, 설계가들이 형성도안을 《꿈》이라고 하였는데 뜻깊게 이름을 지었다고,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에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정말 우리 어린이들은 당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있다고 그리고 단축해하시던 우리 어머니, 몸소 그러저도 잡아주시고 건설현장을 찾으시어 궁전을 나라의 향들이 사는 맛이 나게 손색없이 꾸려주시기 위해 온갖 실험과 로고를 바치시었고 궁전전원에 나무들도 손수 심으시며 아이들의 미래를 속속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하신 손길아래 그토록 준공예드드 고난의 시기에 도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 넘쳐 울려퍼졌을 우리 수령님께 되새겨보았다.

하기에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속에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진하고보니 수령님과 장군님을 한자리로 모시고 설맞이공연을 진행하였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다고 그렇게 절절하게 말씀하신 어머니라.

에로부터 향들이 사는 집을 궁전이라 불렀다. 국가권력을 한손에 틀어쥐고 통치자들이 자기의 위세를 뽐내기 위해 수 천만민을 망친하면서 화려하고 사치한 안식처로 일떠세운 궁전들이 오늘날 력사의 증거로서 이 세상 곳곳에 서있다.

하나 이 땅에서는 인류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궁전, 오직 어린이만을 위한 사랑의 궁전전실 력사가 흐르고있고 우리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창조된 그

사람의 력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오늘도 맥맥히 이어지고있음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세계만방에 소리가 높고 노래하고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행복의 무아경이다. 과학동화 에능동, 예술종합현장장의 소조실들과 훈련장들, 수영관, 체육관을 비롯하여 어디에 가보아도 눈부신 황홀경이다.

같이자모양으로 특색있게 만들어진 책걸상들이 갖추어진 소조실에서 첫 수조실험성공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재들처럼 내 조국을 세상에 우뚝 올려세울 만만한 야심과 크나큰 포부를 안고 나라의 기둥감, 미래의 인재들로 자라나고있는 컴퓨터소조실들의 모습도 대견하다. 자기도 모르게 발상발상 넘쳐흐르는 웃음을 입가에 가득 담고 위대한 새시대에 펼쳐진 최후의 선경들을 갖가지 색칠로 한문두름 수놓아가는 수예소조 처녀애들의 모습은 더욱욱 귀엽기 그지없다.

전문배우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훌륭하게 꾸려진 소조실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도 기뻐 이마에 송광송광 내뿜는 땀방울을 훔칠 필요도 하지 않고 무용동작과 기법들을 익혀나가는 조선무용소조실의 수미령 소조실들, 휴식시간이 되자 저저마다 새로 놓인 독신한 의자들에 앉아 재물을 부리는 그 모습, 단 한점의 그늘도 찾아볼수 없게 마룻말을 밟고 서있는 그 얼굴들이 광광한 시라질들 뿐이었다.

따뜻한 맑은 물 출렁이는 수영관의 물소리 또한 유정하게 들려왔다. 국제경기도 할수 있을 정도로 품되어 꾸러놓으니

아이들이 물속에서 뚝 나오려 하지 않는다고 웃음질만, 자랑질만으로 떠놓는 지도교원의 《격정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흥겹게 하여주었다.

아외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10여대의 새 차를 타고 교통안전규정을 쉽게 배울수 있는 새 실습장을 따라 생생 달리기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하는 자동차소조원들의 열정넘친 모습을 가슴가득히 안아보았다.

어제 그뿐이라, 은구슬, 금구슬 굴리는듯 청고운 목소리로 고마운 우리 당에 대한 송가를 부르고 또 부르는 너중창소조원들,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노래를 부른 그날의 그 영광을 이들은 심장으로 부르는 그 노래들과 함께 한생토록 길이 전해갈 것이다.

각종 전자악기들을 울려나오는 경쾌하고도 박력있는 선율 또한 발걸음을 붙잡았다. 앞날의 연주자들의 얼굴마다에 넘쳐나는 저 맑은 웃음을 꽃피워주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전자악관종합훈련장에서 이그토록 귀중한 혁명시간을 아낌없이 바치시었으리라는 생각이 가슴은 무뎠달아올랐다.

아마도 연건축면적이 10만㎡가 훨씬 넘는 크나큰 건물들의 내외부를 체계적으로 개진할 방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이의 안중에 떠오른것은 수천만민의 자급이 아니라 더 활짝, 더 밝게 웃으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더 높이 울려갈 키워는 우리 어린이들의 밝고 맑은 모습이었으리라.

그래서였다. 지열방향체계를 비롯하여 3중으로 구성된 난

방체계들로 필요한 온도를 보장하도록 되어있으며 과무벌, 종무벌, 무문벌목색이 살아나도록 독특하게 꾸려진 근 150개사 되는 각종 소조실들과 훈련장들, 과학동화 에능동, 어떤 형태의 예술공연도 원만한 진행할수 있게 현대적미감과 동시에 맞게 전면된 극장, 어린이들의 호혜-궁전 합숙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줄 모르는것은.

아이들은 가식을 모른다.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행복을 감출 줄 모른다. 이제 그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입가에서 웃음이 가슴을 뜨겁게 뜨겁게 지낸 어린시절을 두고두고 추억할 것이지 저기들을 소중히 안아키운 고마운 우리 당과 조국을 위해 자기의 미래도 그처럼 아름답게 가꾸어나갈 것이다.

그렇다.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 이는 곧 조국의 미래가 또 얼마나 위창찬한것인가를 예고하는 시대의 메아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길수록 우리의 눈앞에는 환관같은 높이 보살피는 어머니수령님의 친필명제가 가뭇이 떠올랐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보배입니다. 앞날의 조국은 우리 어린이들의 것입니다.》

1989. 4. 15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 우리 어린이들, 위대한 수령이 너희들을 보살피고있었다. 온 세상 부러워하게, 하늘따라 저 멀리 메아리쳐가도록 더 크게 웃어라, 마음껏 노래하라, 앞날의 강성조국은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본사기자 한경철

《평양에도 우리 집이 있다》

이시야말로 온 나라 어린이들의 친아비지시라는 생각이 저저를 격정하고 함께 다시 꿈 파도쳐왔다.

이 세상 모든 노래를 다 합쳐도 담지 못할 위대한 사랑을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선율에 담은 모습은 위대하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하나 여기는 말그대로 외지가 아니라 육친의 정에 비할수 없는 절세위인의 크나큰 사랑이 넘쳐흐르는 어린이들의 호텔, 행복의 보금자리였다.

호텔문을 나섰지만 우리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몰랐다.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김 파도쳐왔다.

이 세상 모든 노래를 다 합쳐도 담지 못할 위대한 사랑을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선율에 담은 모습은 위대하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하나 여기는 말그대로 외지가 아니라 육친의 정에 비할수 없는 절세위인의 크나큰 사랑이 넘쳐흐르는 어린이들의 호텔, 행복의 보금자리였다.

호텔문을 나섰지만 우리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몰랐다.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본사기자 조 함 III

이시야말로 온 나라 어린이들의 친아비지시라는 생각이 저저를 격정하고 함께 다시 꿈 파도쳐왔다.

이 세상 모든 노래를 다 합쳐도 담지 못할 위대한 사랑을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선율에 담은 모습은 위대하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하나 여기는 말그대로 외지가 아니라 육친의 정에 비할수 없는 절세위인의 크나큰 사랑이 넘쳐흐르는 어린이들의 호텔, 행복의 보금자리였다.

호텔문을 나섰지만 우리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몰랐다.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본사기자 조 함 III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 좋은것을 다 주고싶은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벽면에 이채롭게 형성된 병풍이며 가야금, 특색있게 설치된 조명 등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민족적색채를 잘 살린 가야금소조실이 활짝 웃음을 뽐내고 있다.

《현재 우리 소조실원들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추어놓으니 소조실이 퍼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기에 들어설 때마다 무엇인가 꼭 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답니다.》

지도교원 한진명동무가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나의 가슴속에는 무엇인가 이뻐 못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달려진 높이, 이것은 결코 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진되고 생각하고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그날 그이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민민의 아들딸들이 리용하는 궁전을 종합적인 파악요강지로 훌륭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날의 가르치심들중에는 충효를 어린이들의 체질과 특성에 맞게 결정적으로 낮출래 대한 친아비지의 다심한 정이

것은 사랑의 파도도 있었다고 한다.

어제 이뿐이라,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선공혁명군의 그처럼 바쁘신 순간에도 궁전개진과 관련하여 140여차례 걸쳐 몸소 하나하나 보아주시신 형성안들만 해도 소조실형성안, 궁전마크도안, 운동복도안, 종일원부장도안과 총합안도, 명칭에 이르기 까지 무려 250여건이나 된다

《한글을 찾는 사람을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는 우리는 1층에 자리잡은 수백명 수용능력의 식사실로 향했다.

위대한 해님의 사랑에 떠받들려 식사실전경에 활짝 피어날 해바라기들에서 뿜어져나오는 밝은 빛이 아가자기하게 만들어진 식탁과 의자들을 환하게 비추는 식사실은 아이들로 흥성거리고있었다.

배식구에서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받아들고 씹씹하게 걸어가는데 꼬마애들이며 맛있는 음식을 입에 한가득 물고 웃음짓는 장난꾸러기총각애들...

우리는 하루종일 쌓였던 피로도 순간에 가셔주는 아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취하도록 바라

까지 무려 250여건이나 된다

《한글을 찾는 사람을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는 우리는 1층에 자리잡은 수백명 수용능력의 식사실로 향했다.

위대한 해님의 사랑에 떠받들려 식사실전경에 활짝 피어날 해바라기들에서 뿜어져나오는 밝은 빛이 아가자기하게 만들어진 식탁과 의자들을 환하게 비추는 식사실은 아이들로 흥성거리고있었다.

배식구에서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받아들고 씹씹하게 걸어가는데 꼬마애들이며 맛있는 음식을 입에 한가득 물고 웃음짓는 장난꾸러기총각애들...

우리는 하루종일 쌓였던 피로도 순간에 가셔주는 아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취하도록 바라

본사기자

행복의 요람

어떤 공간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민민의 아들딸들이 리용하는 궁전을 종합적인 파악요강지로 훌륭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날의 가르치심들중에는 충효를 어린이들의 체질과 특성에 맞게 결정적으로 낮출래 대한 친아비지의 다심한 정이

본사기자

|| 사랑의 궁전과 더불어 꽃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 ||

소중한 꿈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궁전이 멋들어지게 개진된다는 소식에 절한 수예소조원들의 기쁨은 하늘에 닿았다.

지금의 소조실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저저마다 한사를 이끼지 않고있는데 이제 달라질 소조실은 또 얼마나 희망할 것인가.

소조원들 누구나 환상의 나

때를 끊임없이 열었다.

하지만 얼마 안되어 그 기쁨은 격정으로 바뀌었다.

자기들이 상상속에 그려보는 최후의 궁전에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오시면 무엇을 보여드린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갈라 들었던것이다.

그도그렇것이 한문두름 수를 놓아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수예는 많은 품과 시간이 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궁전 개진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작품창작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런 소중한 마음들에 떠받들려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푸른 소나무 등을 형

《전용사외실》

홍복이 개진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는 학생소년들의 편의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모든것이 원만히 갖추어

상한 수예작품들이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오늘도 이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남다른 자랑이기를 전해가며 가슴속에 고이 간직된 행복의 꿈이 꽃피 영광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물가떨기까지 설치되어있어 한겨울에도 아무런 걱정없이 재능을 꽃피워가는 자랑으로 하여 소조원들은 어찌가 절로 으쓱해지고 한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수 없는 행복의 궁전에서 특별대우까지 받으며 재능의 노래를 활짝

울려군 하는 아이들을 위해 소조실가까이에 특별히 꾸려진 사외실이였다. 이런 《전용사외실》을 가지고있는 소조는 비단 조신무용소조뿐이 아니였다.

물가떨기까지 설치되어있어 한겨울에도 아무런 걱정없이 재능을 꽃피워가는 자랑으로 하여 소조원들은 어찌가 절로 으쓱해지고 한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수 없는 행복의 궁전에서 특별대우까지 받으며 재능의 노래를 활짝

펼쳐가는 우리 학생소년들이 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꽃수레를

조약대가 전하는 사연

수영관을 찾은 우리에게 지도교원 박연옥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조약대도 그러하지만 주로 물 50m와 25m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설비 또한 대단한 값 비싼것이로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설비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리용하는 수영관에서나 볼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경**

타고있는 나라의 왕이 아니겠는가.

기도 치를수 있는 이런 최상급의 수영관이 자기들의것이 되었으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 물속에서 나을년을 안한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이 다 알수 있으랴. 조약대를 세계적수준으로 설치하기 위해 그처럼 유능한 수영관의 건설까지 들어올렸음은 10m조약대에서 원정까지

3m를 훨씬 넘으면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흥분하였지만 당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그리하여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도록 천정을 들어올리는 공사가 진행되게 되었다.

그렇게 달라진 높이는 불과 수심 3m, 그러나 거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헤아릴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이 비껴있음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세세년전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체육관에서-



-조선무용소조실에서-



-컴퓨터소조실에서-

본사기자 한경명, 김진명 찍음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태를 힘있게 과시해나가자

각 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결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종업원결기모임들이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진행되었다.

모임들에서는 보고에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를 끝맺는 격정속에 받아안으시며 주체조선의 첫 수조산시험이 완결성공하였다는 장쾌한 소식에 절찬을 올리고 있다.

모임들에서는 보고에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를 끝맺는 격정속에 받아안으시며 주체조선의 첫 수조산시험이 완결성공하였다는 장쾌한 소식에 절찬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긍지높이 축하하고 올해의 투쟁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 빛내이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철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군대와 대중모를 적극 살려나갈 강령적지침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렬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태를 힘있게 과시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 부름이리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뿔뿔이어나 산도 좋고 기고 바다도 배우는 기적들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정권강화발전전, 보통강구어송배전, 종업원결기모임들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철을 일으켜나가는 데서 전력투쟁이요 말하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발전성비밀에 대한 점검보수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만가동, 만부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고 효

과있게 쓰기 위한 뒷바람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순천지구청년단방면합기업소 종업원결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서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뜻깊은 올해에 석탄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탐사와 굴진을 앞세우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지구들에 탐사개발을 집중하는 것과 함께 합리적인 채탄방법을 받아들이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보장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결기모임에서는 금속공업부문을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삼아주고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확대하여 공장재산을 늘여나갈 것같은 의지가 표시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철생산의 자립성과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현대화된 공장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집중은 압연강재들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을 위한 전투장들에 더 많이 보내줄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서령양기판차련합기업소, 평안북도농업기계연구소 등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로동계급을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만가동과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깊이 새기고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철도를 높은 수준으로 주체화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현대적인 차량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5.18부사정시건인조과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기관차수리정비에서 혁신을 일으켜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경제부문에서 활기를 띠고 원만하게 전진하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장원들모임에서는 사회주의 수조산의 제1제대 제1선창호제기 기술대회를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진을 일으켜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시는 기적비밀을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전진을 일으켜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배두대지에 청년강국의 기쁨비를 일깨우며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인민경제, 계속적인

합작기회를 다그치며 영농정책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앞목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애국모반과복음, 금성식료공장 종업원결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생산을 활성화해 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기술에 의거한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기대를 띠며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고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는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많이 내놓을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다.

백두산영농청년3호발전소 건설자들과 결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백두산농장들의 가슴속에는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될 혁명열, 투쟁열로 세계에 뿔여나갈 결의와 투쟁열을 바쳐 모든 건설대상들을 시대의 본보기, 최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단의 속도로 일떠세워 건설의

진, 계속혁신해나감으로써 수조산시험성공의 피성이 새로운 영농청년신화창조의 만세소리로 울려퍼이게 하도록 하도록 언급하였다.

922건설물격대 물격대원들도 결기모임에서 인민생활문제를 원만히 국가사관으로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며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쳐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철을 일으켜나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평양블록프공장, 평양목재공장, 서구공공건설실업소, 동평양금속공업공장, 오석산화학공업소 종업원결기모임들에서는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과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당의 건설방침과 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공격을 힘있게 벌려나갈 결의와 투쟁열을 높여나갔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인민경제에 대한 열사부투쟁을 안고 성실한 탐방을 바쳐 모든 건설대상들을 시대의 본보기, 최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단의 속도로 일떠세워 건설의

대변영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며 중요대상건설들에 보내줄 화강석가공품과 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홍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결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자강혁명투쟁의 물심양면간직하고 내부애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정상상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생산설비들을 만부하로 돌려 주체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제품의 질제고와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주고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했다.

자강도립업관리국 종업원들의 결기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라는 전투적호소를 높이 들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기에 적극 기여할 혁명열의지가 표명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생산적지력을 바로 정하고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더 많은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올

해 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는 심정마다에 받아안은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의 종업원들도 결기모임에서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만화영화대국으로 빛내일 열정과 투지를 안고 창작활동에서 새로운 전철을 가져오며 그것을 불씨로 영화혁명의 불결을 세계에 일으켜나가는 데서 기수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기모임들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세상이 우러르는 천하제일위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령자로서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중적근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혁명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강성국가건설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했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사회에 넘치는 미덕의 향기

각 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애국충정을 삶의 본태로 여기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숭고한 미덕의 화원은 오늘 더욱 아름답게 꽃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중모를 적극 살려나갈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배두산전철 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수없이 찾아하고 있다.

중도원은하리복공장 지체인 조철주동무는 원산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는 사업에 자신의 깨끗한 충정을 바치셨으며 고성군에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는 만년대계의 고향을 새기는 사업이 벌일 때에도 출신 많은 땅의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평양삼점 로동자 김숙영동무는 지난 18년간 어머니수령님의 정자 활짝 꽃피는 이 땅에 여기고 남모르는 헌신을 바치려는 미용사들이 수없이 많다.

김만유병원 종합실업검사과 세균검사실 실장 윤선희동무는

다하고있다.

해방후부터 어머니수령님을 모가까이 모시고 일한 외할아버지와 학생시절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어머니의 절절한 당부를 안고 김숙영동무는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드는 자기 가정의 가풍을 대를 이어 빛내이기 위하여 애써왔다.

그는 부모형제와 함께 지금까지 18차례 걸쳐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찾아 50종에 410여 점에 달하는 판도구구들과 많은 땅의 후방물자를 지원하였던 당시 참상이란 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은 직접 자기들의 손으로 심어 자라왔다.

통라도지도국 기술준비소 기술준비원 립실향동무는 2009년부터 12차례 걸쳐 금수산태양궁전주변을 더 잘 꾸리기 위해 전심을 바치셨으며 참전거려건설과 최전방건설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다.

우리 당의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정자가 활짝 꽃피는 이 땅에 여기고 남모르는 헌신을 바치려는 미용사들이 수없이 많다.

김만유병원 종합실업검사과 세균검사실 실장 윤선희동무는

당의 후대사망의 뜻을 받들어 지난 18년간 40여명의 부모님은 아이들을 잘 키워내세우기 위해 뜨거운 정성을 바치셨다.

그는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며 마나민 전진선을 걸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혈을 덜어드릴 한마음으로 1997년 6월부터 처녀의 몸으로 부모님은 아이들을 맡아키우기 시작했다.

간판아기로부터 소학교, 중학교학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이들을 한시도 놓아놓지 않은 윤선희동무는 그들모두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훌륭한 아들딸들로 키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매 아이들의 소실에 따라 경상유치원과 중구여대문유치원, 평양학생소년궁전에 보내어 재능을 활짝 꽃피우도록 하였으며 가족애소리를 준비하여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 나가 예술노동 활동을 적극 벌림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고난을 막고 장성한 영으로 달려나가는 조국의 승리를 폐부에 새기고 자라도록 하였다.

아들딸들의 작은 가슴속에 뜨거운 애국심이 깃들게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유류자재를 모아 공장들에 보내주었으며 가장 애국분자를 성의껏 준비하여 인민군부대들에 보내주었다.

수령님 아이들 앞에서 어머니의 본분을 다하며 윤선희동무의 뜨거운 정성과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39명의 아들딸들이 최전선을 비롯한 조국보위소로 달려나갔으며 군사복무를 마치고 당과 조국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성실한 탐을 바쳐가고 있다.

덕천시 장상동 4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리명화동무도 지난 20년간 20명의 부모님은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맡아안고 잘 키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리명화동무의 고결한 후대사망을 본받아 그의 딸도 여러명의 아이들이 태어난 전철을 다 바치셨다.

사리원시 구릉리 35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여동무도 수십명의 부모님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는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고있다.

이들과 같은 애국충정과 미풍의 소유자들이 많아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중모는 날로 더욱 꽃피고있다.

본사기자 허명숙

안주뽕프공장의 새 기술도입 속도가 빠른것이 주목된다.

애니메이션의 주류공정과 현대적인 프로그래밍이 일떠선것을 비롯하여 생산의 과학화수준이 한계단 높아졌다. 최근년간에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수시건설의 콤팩트한 새 기술들이 도입되었으며 중요 대상들에서 도입되는 특수장비들을 자체로 제작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결과 해마다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제품의 질을 종전때 비해 높이고 원단위소비기준을 크게 줄였다.

늘푸른 새해의 뽕프드레너이어 개발하고있다.

성파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이 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공업기술실업의사업을 주동자들이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발전적인 사업체제를 세웠다.

기술발전과 대학을 갖 졸업한 실력이 높은 기술자들로 구성된 실업체제이다.

전기, 기계, 역학분야의 현대기술로 무장한 이들의 사명은 주에 1차 진행되는 공업과학기술실업의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참모부서들과 현장기술자수준에서 제기된 새 기술혁신인들을 높이고 공장의 기술발전전략과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가를 따져 추진하고 성공에 이바지하는 데서 핵심역할을 하는것이다.

한때로 어떤 기술개발이나 현대대상이 나서면 총적인 연구방향을 정하는 기술력량을 총동원하여 중요기술과제들을 수행하고있다.

그러면 이 사업체제가 새 기술도입속도를 높이는 데 어떤 작용을 하는가.

공장에서는 생산을 활성화하고 새 제품개발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해 기술자들

당정책관철에서 본받았던 단점이다.

지난 시기 공업과학기술실업의사업은 몇몇 기술인원들의 몫으로 간주되어왔다. 따라서 새 제품개발과 설계사업이 용량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였다.

현시기 신기술의 갱신주기가 짧아지고 그 심도가 깊어지는 반면에 포괄하는 영역이 넓어지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과학기술실업에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당, 행정책임인원들은 이 문제를 물론 오랜 기술인들이 기술혁신과제를 맡아 수행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세출된 기술혁신인원을 놓고 공업과학기술실업의사업 책임을 지배하는 20대, 30대의 젊은 기술자들과 보다 진지하게 기술적의견들을 나눈다. 현실도입가능성, 경제성, 리, 세계적발견과 동등 가치금 구체적으로 따져보는것이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실업이 진행될 때의 발전과 이익의자는 물론 그밖의 기술자, 기능공 등 핵심기술력량을 여기에 참가

는 사업이 잘되어 새 기술도입 속도가 높아지는것은 지명한 사실이다.

과학기술실업에서 이룩한 일꾼들이 중시한 문제가 있다. 기술발전과 기술자들을 실력위주로 선발해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술발표회, 전람회, 전시회 등에 보내어 보다 많은 정보자료들을 알게 하며 기술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이곳 당정책인원들은 기술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보조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새 기술도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도록 앞장서서 일하고있다.

지난해에도 과학기술실업에서 평가된 기술자들은 위주로 한 공업혁신자들의 전력이 여러차례 조직되고 공모되는 기술자들에게 대한 평가사업이 의의있게 진행되었다.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기술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의 중심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여러가지로 좋았다.

이렇게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실업의사업을 방법론있게 따고들이 전방적인 기술자들의 실력을 한층 높이고 대중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생산과 과학기술의 유기적결합을 잘해나가고있다.

안주뽕프공장의 기술발전 전력을 명백하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 자강혁명투쟁의 물결을 높이 고나갈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현실로 보여주는것이다.

이곳 당, 행정책임인원들의 사업경험은 당의 과학기술실업의사업을 방법론있게 관철해나갈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새 기술도입 속도를 높여내는가

안주뽕프공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기술도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도록 앞장서서 일하고있다.

지난해에도 과학기술실업에서 평가된 기술자들은 위주로 한 공업혁신자들의 전력이 여러차례 조직되고 공모되는 기술자들에게 대한 평가사업이 의의있게 진행되었다.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기술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의 중심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여러가지로 좋았다.

이렇게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실업의사업을 방법론있게 따고들이 전방적인 기술자들의 실력을 한층 높이고 대중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생산과 과학기술의 유기적결합을 잘해나가고있다.

안주뽕프공장의 기술발전 전력을 명백하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 자강혁명투쟁의 물결을 높이 고나갈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현실로 보여주는것이다.

이곳 당, 행정책임인원들의 사업경험은 당의 과학기술실업의사업을 방법론있게 관철해나갈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단상 축복의 꽃다발

첫 수조산시험에서 완결성공이라는 대사건을 맞이한 20대 평양신년인의 한 일꾼이 전하는 나에게 많은 생감을 불러왔다.

수화기를 드응드응 울리는 그 일꾼의 목소리는 얼마나 흥분해 있었는지.

《수조산시험에서 완결성공이 뜻깊은 오늘 우리 산에서 어느때보다 많은 아이들이 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첫 수조산이 태어난 날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출생한것은 나라가 더욱 융화 정조가 아니겠습니까.》

수조산의 탄생과 아이들의 출생!

이룩하는것으로 빛내여갈 열의에 넘쳐 김일성평장으로 모여 왔다.

중앙기 관 일꾼들의 집단달리기 진행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혁명의 지휘성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힘차게 달려왔다.

방송선전자의 힘있는 선동과 노래소리에도 화답하듯 《총공노래》, 《경상유위》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웨치며 달리는 정무원들의 활력에 넘친 모습은 뜻깊은 올해의 총진격에 떨치는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

어린 수난자들의 눈물겨운 참상은 무엇을 보여주는것인가.

총대가 약한 어린이들의 고고성도, 그들의 미래도 지켜줄수 없다는것이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장을 모실 때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후대들의 꿈과 미래도 지켜줄수 있다는것이 흥러운 령사와 오늘날의 세계가 확증해주고있는 진리이다.

형언할수 없는 고난의 연덕을 넘고넘고시며 원부들이 전철을 령성을 장엄히 리쳐올리신

본사기자 리정수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의 선군길을 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의 첫 수조산은 이렇듯 나라와 민족의 운명, 후대들의 미래를 지켜주시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전철위인들의 열화같은 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그렇다. 우리의 수조산시험 완결성공이야말로 백두산후손들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꽃다발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리정수

뜻깊은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성, 중앙기 관 일꾼들의 집단달리기 진행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혁명의 지휘성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힘차게 달려왔다.

방송선전자의 힘있는 선동과 노래소리에도 화답하듯 《총공노래》, 《경상유위》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웨치며 달리는 정무원들의 활력에 넘친 모습은 뜻깊은 올해의 총진격에 떨치는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

뜻깊은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성, 중앙기 관 일꾼들의 집단달리기 진행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혁명의 지휘성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힘차게 달려왔다.

방송선전자의 힘있는 선동과 노래소리에도 화답하듯 《총공노래》, 《경상유위》 등의 구호를 우렁차게 웨치며 달리는 정무원들의 활력에 넘친 모습은 뜻깊은 올해의 총진격에 떨치는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

새해 첫 체육의 날을 맞으며



성, 중앙기 관 일꾼들의 집단달리기 진행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 본사기자 리정수 찍음

김일성 평장에서 - 김일성 평장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찍음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은 조선의 승리, 국력을 과시한 또 하나의 사변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소식 여러 나라에서 특대소식으로 련속 대과문

조선인민을 축하한다

정당, 단체들 성명 발표

파키스탄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축하하여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2016년 1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시험을 진행하여 완전히 성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세계역사에 획기할 사변으로서 조선은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민족의 기개를 높일뿐 아니라 민족의 자존감을 높여 주었다. 또한 조선인민이 우주개발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핵억제력강화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여 나라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

조선이 행한 수소탄시험의 눈부신 대성공은 민족의 천만년래를 억압받았던 민족의 역사적 영광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대사변은 오직 결속한 수령의 평도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파키스탄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의 대성공을 축하하며 수소탄시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조선 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정은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성과를 향유하여 이룩하시기를 굳게 확신한다.

우리의 수소탄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과 관련하여 로씨야

로막고 《세도봉곡》을 실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방대한 각종 핵실험무기를 위한 미국의 맞서 조선이 수소탄을 보유한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에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로 된다. 우리는 새로운 병정로선을 틀어쥐고 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가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을 지지한다.

조선인민을 축하한다. * * * 주제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축하하여 우간다, 인디아 단체가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전국적행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제국주의전쟁광신자들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의 안전이 위협에 직면하였다.

이런 수소탄시험성공은 조선나라의 안전을 위한 단호한 조치

로씨야전문가들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일찌기 주장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제연구소 정 처진구씨는 로씨야 전문가인 안드레이 위노그라도프는 신문 《메를라》에 실린 기고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수

의 최고명도자 김정은 각박하게 펼쳐지는 선군정치에 위대한 승리이며 그 생활력의 시위이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전쟁위협을 막기 위한 막강한 억제력인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조선인민은 존엄높은 민족의 기개를 온 세상에 떨쳤다.

우리는 이번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이 조선반도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인민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리라고 확신한다. 새로운 병정로선을 틀어쥐고나가는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수는 있으나 군사적행동은 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핵력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러한 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에 대한 담보로 간주하고 있다.

진정한 평화애호국가 인사들 담화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며 불가리아 공산당의 자동명 명어위원장 아나스타시와 나노프가 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 대립정책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며 불가리아 공산당의 자동명 명어위원장 아나스타시와 나노프가 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도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애호국가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일부 나라들에서 전쟁을 도발하였던 침략자들은 오늘 조선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은 수소탄시험을 단행하였다. 조선에는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있는 영웅적인 인민이 살고 있다. 원수들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아무리 힐끔도 눈여겨볼 것은 하나도 없다.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조선의 승리이다. * * * 마자르셰페르 위원장 슈트레르 줄라가 8일 우리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수소탄시험 완전성공한 것은 조선의 국력을 과시한 또 하나의 사변으로 된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과감히 결심하신 조선혁명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대조선적대정책은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정세로 몰아갔다. 조선반도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 대립정책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며 불가리아 공산당의 자동명 명어위원장 아나스타시와 나노프가 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도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애호국가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일부 나라들에서 전쟁을 도발하였던 침략자들은 오늘 조선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은 수소탄시험을 단행하였다. 조선에는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있는 영웅적인 인민이 살고 있다. 원수들

서방의 위선적인 반응 브라질신문 글 게재

브라질신문 《파르티다 라타 나》 6일 부가 경에 하는 김정정은 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성과를 향유하여 이룩하시기를 굳게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대외 정책의 공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특수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합법적권리를 행사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세계의 핵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수소탄을 틀어쥐고 우리 공화국은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 * * 로씨야전문가들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일찌기 주장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제연구소 정 처진구씨는 로씨야 전문가인 안드레이 위노그라도프는 신문 《메를라》에 실린 기고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수

우리의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 * * 로씨야전문가들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일찌기 주장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제연구소 정 처진구씨는 로씨야 전문가인 안드레이 위노그라도프는 신문 《메를라》에 실린 기고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수

우리의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 * * 로씨야전문가들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일찌기 주장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제연구소 정 처진구씨는 로씨야 전문가인 안드레이 위노그라도프는 신문 《메를라》에 실린 기고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수

우리의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 * * 로씨야전문가들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일찌기 주장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제연구소 정 처진구씨는 로씨야 전문가인 안드레이 위노그라도프는 신문 《메를라》에 실린 기고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수

세계의 핵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수소탄을 틀어쥐고 우리 공화국은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 * * 로씨야전문가들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일찌기 주장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제연구소 정 처진구씨는 로씨야 전문가인 안드레이 위노그라도프는 신문 《메를라》에 실린 기고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수

우리의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 * * 로씨야전문가들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일찌기 주장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제연구소 정 처진구씨는 로씨야 전문가인 안드레이 위노그라도프는 신문 《메를라》에 실린 기고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수

우리의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 * * 로씨야전문가들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일찌기 주장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제연구소 정 처진구씨는 로씨야 전문가인 안드레이 위노그라도프는 신문 《메를라》에 실린 기고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수

우리의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 * * 로씨야전문가들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일찌기 주장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제연구소 정 처진구씨는 로씨야 전문가인 안드레이 위노그라도프는 신문 《메를라》에 실린 기고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수

조선이 행한 수소탄시험의 눈부신 대성공은 민족의 천만년래를 억압받았던 민족의 역사적 영광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대사변은 오직 결속한 수령의 평도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 * * 로씨야전문가들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일찌기 주장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제연구소 정 처진구씨는 로씨야 전문가인 안드레이 위노그라도프는 신문 《메를라》에 실린 기고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수

우리의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 * * 로씨야전문가들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일찌기 주장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제연구소 정 처진구씨는 로씨야 전문가인 안드레이 위노그라도프는 신문 《메를라》에 실린 기고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수

우리의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 * * 로씨야전문가들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일찌기 주장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제연구소 정 처진구씨는 로씨야 전문가인 안드레이 위노그라도프는 신문 《메를라》에 실린 기고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수

우리의 핵으로, 이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 * * 로씨야전문가들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발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정책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고 일찌기 주장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제연구소 정 처진구씨는 로씨야 전문가인 안드레이 위노그라도프는 신문 《메를라》에 실린 기고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수